

2018년 6월 1일

csf@kiep.go.kr

인도, 중국 구이양에 합작 빅데이터 산업단지 출범



□ 2018년 5월 27일 인도 정부는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구이저우(Guizhou)성 구이양(Guiyang)시에 '인도- 중국 합작 IT 산업단지'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발표함.

- 인도의 대표적 IT 협회인 나스콤(NASSCOM,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)과 정보 기술 교육 및 두뇌개발 전문 기관인 NIIT(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)가 구이양시와 제휴하여 출범시킨 것으로, 다롄(Dalian)시에 이은 두 번째 합작 산업단지임.¹
- 본 산업단지의 주요 개발 내용으로는 빅데이터에 특화된 'NASSCOM IT 회랑(corridor) 조성'과 'NIIT 훈련 기관 설립'이 있음.
 - 중국의 제조업(하드웨어)과 인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결합하는 틀로, NIIT 훈련 기관은 빅데이터 기술, 네트워크 개발 및 비즈니스 정보 분석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설계해 중국 기업에 제공할 예정
-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High-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내부에 약 8,000제곱미터 규모로 개발되며, 입주기업에 사무실 무료임대, 세금 감면, 기업 지원(Aid) 등의 혜택을 제공함.
 - 구이저우성은 중국 최초의 정부 데이터 개방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, 중국 내 첫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관련 산업에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.²

그림 1. 구이양시 위치



자료 : China Discovery

1 다롄(Dalian)시 합작 IT 단지의 경우 사물인터넷(IoT)이 핵심이며, 2017년 11월 관련 MOU를 체결하고 2018년 5월 25일에 출범식을 가짐.

2 중국은 2015년 빅데이터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으며, 구이저우성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음. 구이양시는 중국의 '빅데이터 벨리'로 불리며 관련 사업으로 817억 위안(약 13조 7천 452억 원, 2017년 기준)의 매출을 창출해 시 GRDP의 약 33%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.

<http://www.chinadaily.com.cn/a/201805/28/WS5b0ba23ca31001b82571cb54.html> (검색일:2018.5.28.)

- 인도는 양국 기업이 상호 협력하는데 최적의 환경이 조성 되도록 'SIDCOP(Sino- India Digital Collaborative Opportunities Plaza)'라는 온·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으며, 다렌과 구이양 산업지구에 적용할 예정이다.
 - 중국 로컬 SIDCOP은 인도 스타트업 Zeta-V 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(AI) 및 사물인터넷(IoT) 기반의 플랫폼으로, 아이디어를 구현 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자동화하고 최소화함.
 - 동시통역, B2B 정보시장, 전자조달, 공유 지휘본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인도 기업이 중국 클라이언트의 수요 (예: 생산모델 고도화, 데이터센터 설립 등)를 정확히 조사하고 반영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.
- 인도 - 중국 합작 IT 산업단지를 통해 중국은 인도의 풍부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증하는 빅데이터 시장 개발과 관련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, 인도는 거대한 중국 시장 진입을 통한 자국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.
- 구이양시는 본 합작단지가 3~5년 이내 25개 이상의 인도 기업을 유치하고 2,750만 위안(약 430만 달러)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함.
 - 미국의 반(反) 이민 정책으로 취업비자를 받기 어려워진 인도 IT 기술자들은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있으며,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확실한 진입로를 제공
- 합작 IT 단지에 대한 양국의 기대가 높으며 향후 관련 분야의 협력 범위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나스콤 관계자는 최근 IT 산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며 양국의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을 공동 개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.
 - 베이징- 텐진(Tianjin) 주변 지역에 2개 이상의 IT 합작 단지 개발을 추가 검토 중 이라고 밝힘.
- 양국 언론은 공통적으로 지난 달 개최된 인-중간 비공식 회담 이후 양국 간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, IT 단지 또한 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물이라고 언급함 **CSF**

참고자료

Xinhua 통신, Guyiang시 홈페이지, Economic Times, NDTV, Times of India 등

(작성자 : KIEP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김도연 전문연구원)